

## 혼인의 결정 요인 - 가정 배경을 중심으로\*

박 철 성\*\*

### I. 서 론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만혼과 비혼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혼외 자녀의 비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sup>1)</sup>에서는 (여성의) 혼인이 늦어지면 자녀를 임신·출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줄어들므로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비혼이 늘면 평생 출산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출생아 수는 감소할 것이다.

[그림 1]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나온 전국과 서울특별시의 평균 초혼 연령의 추이를 보여준다. 혼인한 사람의 평균 초혼 연령은 거의 매년 증가하였다. 2000년에 전국 남편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3세였지만 2022년에는 33.7세로 4.4세 증가하였으며, 전국 아내의 평균 초혼 연령은 26.5세에서 31.3세로 4.8세 증가하였다. 전국보다 서울특별시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편은 0.5세, 아내는 1세 정도 더 높아서 다른 지역에서보다 서울에서 만혼이 더 흔함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40세에서 44세의 인구 400만 명 가운데 미혼자의 비율은 3.7%였고,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은 4.9%, 여성은 2.6%였다.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는 같은 연령대의 인구 376만 명 가운데 미혼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21.0%, 남성은 27.2%, 여성은 14.7%로 5배 넘게 증가하였고, 미혼자의 숫자는 15만 명에서 79만 명으로 늘었다. 만혼의 증가로 이 연령대에서 혼인율이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미혼자의 증가 정도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우리나라에서 평생 혼인하지 않는 사람의 숫자나 비율은 지난 20년 사이에 큰 폭으로 늘었을 것이다<sup>2)</sup>.

우리나라에서 만혼과 비혼의 증가를 이해하기 위해 혼인의 결정 요인에 관해 연구한 경우가 여럿 있었다. 안태현(2010)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남성의 고용상황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2000년과 2008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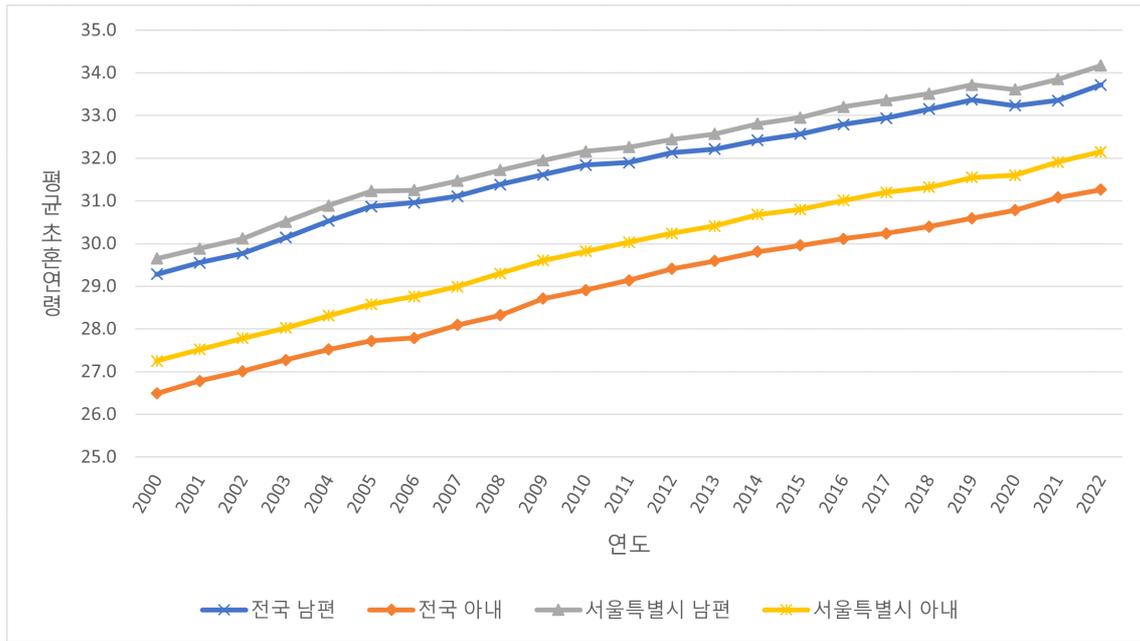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1) 2019년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2.3%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다른 나라의 혼외 출산율은 스웨덴 54.5%, 영국 48.4%, 미국 39.6%, 독일 33.9%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혼외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은 정의 관계를 보인다.(통계청, 2020)

2) 40세에서 44세의 남성 1,000명당 혼인 건수는 2000년에 6.1, 2020년에 8.1로 2건 늘었고, 여성 1,000명당 혼인 건수는 5.0에서 5.6으로 0.6건 늘었다. 45세부터는 혼인율에 별 차이가 없다.

[그림 1] 전국과 서울특별시의 평균 초혼 연령 추이(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률모형으로 혼인상태의 결정요인을 분해한 결과 20대와 30대에서 미혼율 증가의 80%는 관측되는 변수로는 설명할 수 없고, 설명되는 부분의 대부분은 미취업률의 증가에서 기인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차부터 10차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취업상태, 아버지의 학력, 대도시 거주 여부, 거주지의 실업률이 1년 후 혼인상태에 영향을 주고, 실직의 경험이 혼인 확률을 많이 낮추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호·이상헌(2010)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시·도 수준의 변수가 혼인 건수와 혼인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여 임시직 비율, 주택의 매매·전세가격, 실업률의 증가가 혼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내놓았다. 한국노동패널 4차부터 11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성은 정규직 근로자, 소득이 높은 사람이 1년 후 혼인 확률이 높은 반면에 여성은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이 혼인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성준(2015)은 한국노동패널 3차부터 13차 자료를 이용하여 생존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고,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혼인 확률이 높지만 여성은 그 반대이며, 상시직 근로자가 다른 사람보다 혼인 확률이 높고 만 14세 때 가정형편이 좋지 않으면 혼인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남국현·김대일(2016)은 한국노동패널 1차~18차 자료를 이용하여 20~40세 미혼여성의 혼인 해저드를 분석한 결과 고학력화와 취업률의 증가가 여성의 혼인 해저드를 낮춘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미혼자의 노동시장 상태와 교육 수준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남성은 학력, 소득이 높고 일자리의 질이 좋을수록 혼인할 확률이 높지만 여성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결과를 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슷하게 남성과 여성의 혼인 결정 요인을 추정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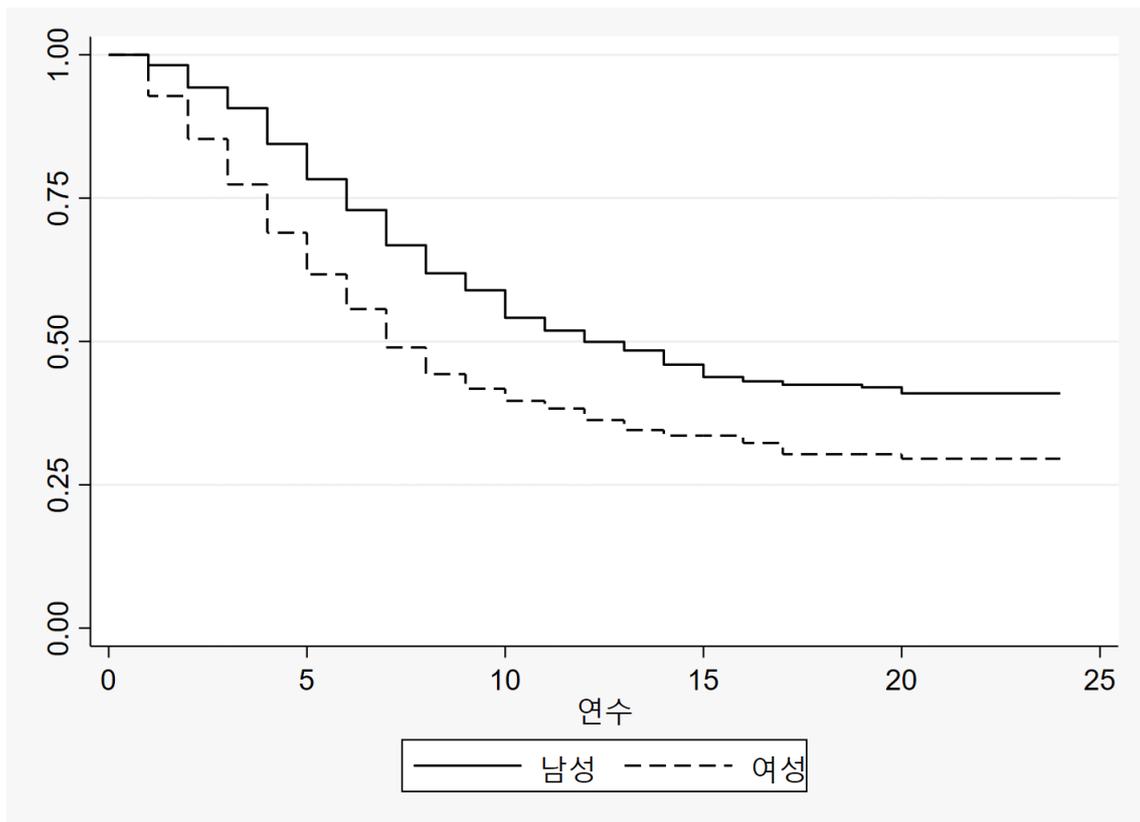
서는 청년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소득, 자산 등)을 포함한 배경이 혼인에 주는 영향을 더 깊이 살펴본다. 최근에 집값의 상승, 자녀 양육 비용의 증가가 비혼과 만혼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금수저-흙수저’,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청년 자신보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결혼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런 의견이 실제로 얼마나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혼인에 추가하여 이 연구에서는 미혼자의 가정 배경이 출산에 주는 영향도 추정한다.

## II. 연구 자료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차부터 24차 조사까지 자료를 모두 이용한다.

[그림 2]는 1차 조사부터 24차 조사까지 각 조사의 25세 미혼자 코호트 자료를 합쳐서 성별로 미혼 상태의 Kaplan-Meier 생존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남성의 생존확률이 여성의 생존확률보다 높아서 남성이 여성보다 미혼자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30세에 남성의 거의 3/4이 미혼으로 남아있지만, 여성은 거의 절반만 그러하다. 남성은 30대 초반에 혼인할 확률이 가장 높고, 여성은 20대 후반에 혼인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25세 코호트의 성별 미혼 상태의 Kaplan-Meier 생존함수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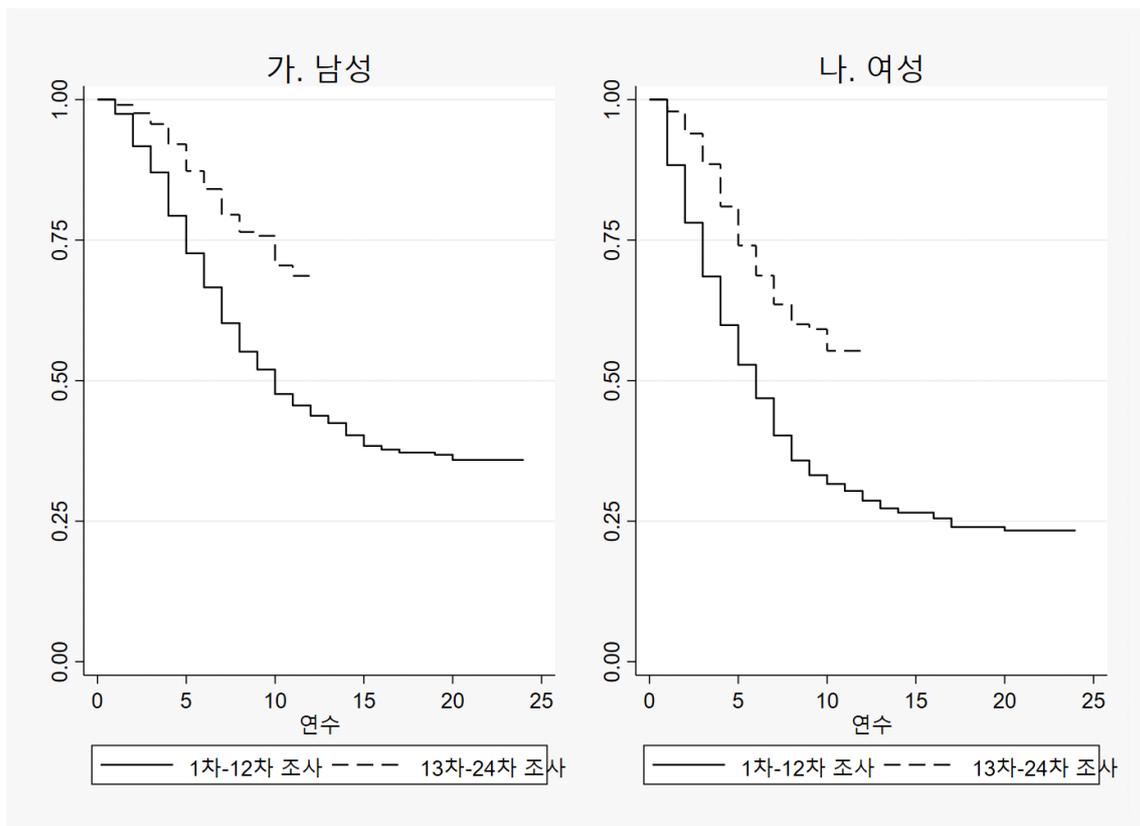
#### 4 \_ 2023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그림 3]은 25세 코호트를 성별, 시대별로 나눠 미혼상태의 Kaplan-Meier 생존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시대별로는 1차 조사(1998년)부터 12차 조사(2009년)에서 25세인 코호트와 13차 조사(2010년)부터 24차 조사(2021년)에서 25세인 코호트로 나뉘었다. 그림에서 성별을 막론하고 최근 코호트의 미혼 생존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5세 때 12차 조사까지의 코호트의 미혼 생존확률은 남성은 0.48, 여성은 0.32인데, 13차 이후 조사 코호트의 미혼 생존확률은 남성은 0.71, 여성은 0.55로 남녀 모두 생존확률이 0.23만큼 증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로 혼인의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첫째는 2차 조사부터 24차 조사까지 각 조사 자료에서 20대와 30대의 미혼자 표본을 추출하여 합친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연도 조사 이전에 혼인하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성별로 따로 추정한다. 둘째는 2차 조사부터 24차 조사까지 각 조사에서 25세의 미혼자 표본을 추출하여 혼인할 때까지 걸리는 연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proportional Cox 모형을 성별로 따로 추정한다.

가정 배경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미혼자 단독 가구는 표본에서 제외하며, 가정 배경의 변수로는 총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가구소득의 대수값, 총자산의 대수값, 부와 모의 교육수준, 부와 모의 나이, 가구 소재지(서울시, 광역시, 기타), 가구원수를 포함한다. 개인의 특성으로 노동시장 상태(재학 중, 미취업, 취업한 사업체의 규모), 교육수준, 나이를 포함한다. 추가로 조사차수를 통제한다.

[그림 3] 25세 코호트의 성별, 시대별 미혼 상태의 Kaplan-Meier 생존함수 추정 결과



### III. 추정 결과

#### 1. 혼인의 결정 요인

<표 1>은 20대 남성과 여성의 혼인 확률 결정요인을 로짓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단 이 집단에서는 가구원 수와 가구 소재지를 제외하고 가구의 특성은 혼인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이나 자산의 계수는 양수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부모의 학력이나 나이도 혼인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광역시나 도에 거주하는 사람의 혼인 확률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다. 남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혼인 확률이 0.011 만큼 더 높고, 도에 거주하는 사람의 혼인 확률은 0.018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자는 거주지의 영향이 훨씬 더 적어서 광역시 거주자의 혼인 확률에 대한 효과는 0.007 정도이다. 남자의 경우 가구원 수가 3인보다 많으면 혼인 확률은 약간 낮아진다.

개인의 노동시장 상태와 나이가 혼인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통학 중이거나 미취업인 남자는 30인 미만 사업체에 취업한 남자보다 0.018 정도 혼인 확률이 더 낮다. 30인 이상 사업체에 취업한 남자는 혼인 확률이 더 높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여자는 통학 중이면 혼인 확률이 낮아지지만, 취업과 미취업, 사업체 규모 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다.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아진다. 29세 때의 혼인 확률은 25세 때보다 남자는 0.025, 여자는 0.022 더 높다.

<표 1> 20대 남성과 여성의 1년 이내 혼인 확률 결정요인의 로짓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남자	여자
균등화 가구소득 대수값	0.190	0.013
가구자산 대수값	0.031	0.041
아버지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중졸 이하	-0.123	0.002
대학 이상	0.310	-0.205
어머니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중졸 이하	0.308	0.098
대학 이상	-0.517	-0.517
아버지 나이	0.015	0.000
어머니 나이	-0.009	-0.022
가구 소재지(기준: 서울시)		
광역시	0.784***	0.294*
도	1.066***	0.252
가구원 수(기준: 3명)		
4명	-0.651***	-0.210

6 \_ 2023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설명변수	남자	여자
5명	-0.513**	-0.109
6명	-0.284	-0.032
7명	-0.051	0.048
8명	0.141	NA
노동시장 상태(기준: 30인 미만 사업체 취업)		
통학	-1.050***	-1.771***
미취업	-1.060***	-0.273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0.344	0.089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0.412*	-0.005
1,000인 이상 사업체 취업	0.196	-0.402
사업체 규모 불명 취업	-0.439	0.250
학력(기준: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0.650	NA
전문대	-0.051	-0.050
대학교	-0.353	-0.120
대학원	0.122	0.680*
나이(기준: 25세)		
20세	NA	-3.298***
21세	-0.636	-2.461***
22세	-0.575	-1.224***
23세	-0.628	-1.216***
24세	-0.526	-0.693**
26세	0.292	0.361
27세	0.685**	0.678***
28세	1.025***	0.986***
29세	1.089***	0.729***
조사차수(기준: 2차)		
3차	1.323***	1.054**
4차	1.006**	1.027**
5차	0.629	1.110**
6차	0.403	1.012**
7차	0.650	0.774*
8차	0.567	0.812*
9차	0.089	0.598
10차	-0.120	-0.323
11차	0.568	0.331
12차	0.550	0.685

설명변수	남자	여자
13차	0.563	0.767
14차	-0.681	0.799
15차	-0.137	0.102
16차	0.120	-0.168
17차	0.354	-0.036
18차	-0.494	0.158
19차	-1.693	0.014
20차	0.174	-0.976
21차	-0.801	-0.353
22차	-1.153	-0.740
23차	-0.555	-2.129*
24차	-0.956	-0.509
상수항	-5.568***	-2.591**
관측치 수	8,371	9,680
관측된 혼인 확률	0.0214	0.0292

주:\*\*\*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 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2>는 30대 남성과 여성의 혼인 확률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남자는 균등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혼인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소득이 10% 오르면 혼인확률은 0.003만큼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자는 가구소득이 혼인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남녀 모두 자산, 부모의 학력, 부모의 나이, 가구 소재지가 혼인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혼인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30대 남성과 여성의 1년 이내 혼인 확률 결정요인의 로짓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남자	여자
균등화 가구소득 대수값	0.640***	0.169
가구자산 대수값	0.029	0.171
아버지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중졸 이하	-0.051	-0.337
대학 이상	-0.193	-0.110
어머니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중졸 이하	0.150	-0.182
대학 이상	-0.369	-0.289
아버지 나이	-0.009	0.013
어머니 나이	0.007	-0.068
가구 소재지(기준: 서울시)		

8 \_ 2023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설명변수	남자	여자
광역시	0.173	0.134
도	0.187	-0.142
가구원 수(기준: 3명)		
4명	-0.378**	-0.695**
5명	-0.778*	-0.203
6명	-0.925	-0.544
노동시장 상태(기준: 30인 미만 사업체 취업)		
통학	-1.009	0.587
미취업	-0.594*	-0.339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0.310	0.524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0.284	0.714*
1,000인 이상 사업체 취업	0.599**	0.741*
사업체 규모 불명 취업	0.184	0.934***
학력(기준: 고등학교)		
전문대	0.325	-0.245
대학교	0.379	-0.302
대학원	0.568	-0.148
나이(기준: 25세)		
30세	0.027	1.428*
31세	-0.253	1.550**
32세	-0.083	1.600**
33세	-0.324	1.211
34세	0.122	0.827
36세	-0.368	0.722
37세	-0.504	0.666
38세	-0.542	-0.066
39세	-0.092	
조사차수(기준: 24차)		
3차	1.937***	
4차	2.371***	-0.785
5차	2.206***	1.056
6차	0.948	-0.285
7차	0.667	0.143
8차	1.451**	-0.015
9차	1.478**	-1.252
10차	0.421	-0.068
11차	1.005	-0.210

설명변수	남자	여자
12차	1.385**	0.447
13차	1.645***	0.487
14차	0.985	0.496
15차	0.804	0.317
16차	0.905	0.842
17차	1.010	0.845
18차	0.284	-0.142
19차	0.709	0.761
20차	1.403**	0.098
21차	0.770	-0.231
22차	0.800	-0.295
23차	0.278	0.009
상수항	-6.160***	-1.805
관측치 수	2,737	1,311
관측된 혼인 확률	0.0552	0.0725

주: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 10% 수준에서 유의함

노동시장 상태는 남녀 모두 혼인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규모가 큰 기업에 취업하면 혼인 확률은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1,000인 이상 사업체에 취업한 사람은 30인 미만 사업체에 취업한 사람보다 혼인 확률이 남자는 0.039, 여자는 0.052 만큼 더 높다. 학력은 유의한 영향이 없다. 남자는 나이에 따라 혼인 확률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지만, 여자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혼인 확률이 낮아진다.

<표 1>과 <표 2>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 확률에 별 영향을 주지 않고, 나이를 제외하면 개인의 노동시장 상황이 혼인 확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보이지 않는 특성이 추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가구의 미혼자가 배우자를 까다롭게 고르는 경향이 있다면 소득과 자산이 혼인 확률에 주는 영향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고정효과 로짓모형을 추가로 추정하였다.

<표 3>은 고정효과 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는 30대 여자를 제외하면 균등화 가구소득이 혼인 확률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소득이 10% 오르면 20대 남자의 혼인 확률은 0.004, 20대 여자는 0.0036, 30대 남자는 0.001 정도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대 남자와 여자에게는 가구 자산도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이 10% 늘면 남자의 혼인 확률은 0.0014, 여자의 혼인 확률은 0.0009 정도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주는 영향이 30대보다 20대에서 더 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20대에서 통학은 혼인 확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 30대에서는 취업이 혼인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수에 유의성은 약하다.

<표 3> 1년 이내 혼인의 결정 요인에 대한 고정효과 로짓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20대		30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균등화 가구소득 대수값	0.900***	1.244***	1.215***	0.173
가구자산 대수값	0.325*	0.327***	0.156	0.659
노동시장 상태(기준: 30인 미만 사업체 취업)				
통학	-2.654***	-3.515***	14.707	2.031
미취업	-1.290***	-0.267	0.084	0.615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0.061	-0.186	0.095	0.686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0.235	-0.161	0.548	1.224
1,000인 이상 사업체 취업	0.238	-0.662*	0.371	3.068**
사업체 규모 불명 취업	-0.256	-0.076	0.666	0.068
관측치 수	878	1686	584	302

주: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 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4>는 2차 조사부터 24차 조사까지 각 조사에서 25세인 코호트를 합하여 혼인까지 걸리는 연수의 Proportional Cox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이 높을수록 혼인으로의 탈출 확률은 높아진다. 남자는 가구소득이 배가 된다면 혼인으로의 탈출 확률은 1.23배 정도 커지며, 여자는 1.11배 정도 커진다. 가구 자산의 영향은 소득보다는 작다. 남자는 자산이 배가 된다면 1.10배, 여자는 1.07배 정도로 혼인으로의 탈출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25세부터 혼인까지 걸리는 연수의 Proportional Cox 모형의 hazard ratio 추정 결과

설명변수	남자	여자
균등화 가구소득 대수값	1.225**	1.106
가구자산 대수값	1.100**	1.074*
아버지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중졸 이하	1.000	0.989
대학 이상	0.895	1.089
어머니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중졸 이하	0.981	1.196
대학 이상	0.721	0.603**
아버지 나이	0.958**	0.985
어머니 나이	1.019	0.981
가구 소재지(기준: 서울시)		
광역시	1.306**	1.186
도	1.214	1.252*

설명변수	남자	여자
가구원 수(기준: 3명)		
4명	0.792*	0.799
5명	0.769*	0.721*
6명	0.475**	0.772
7명	0.639	0.744
노동시장 상태(기준: 30인 미만 사업체 취업)		
통학	0.897	0.590**
미취업	0.780	0.707**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1.472	1.066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1.436*	1.471**
1,000인 이상 사업체 취업	2.231***	1.023
사업체 규모 불명 취업	1.440	1.085
학력(기준: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NA	0.277**
전문대	1.385*	0.996
대학교	1.551**	1.052
대학원	1.536	1.346
관측치 수	1,269	1,066

주: 1) 차수 더미에 대한 추정 결과는 생략함.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 10% 수준에서 유의함

아버지의 학력은 유의한 영향이 없지만,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여자는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인 사람의 탈출 확률의 0.6 정도이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으면 딸의 혼인으로서의 탈출 확률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역시와 도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에 사는 사람보다 혼인 탈출 확률이 1.2배에서 1.3배 정도이다.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혼인 탈출확률은 낮아진다. 남녀를 불문하고 취업자가 학생이나 미취업자보다 혼인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다. 특히 남자는 취업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혼인 탈출 확률은 높아진다.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남자의 혼인 탈출 확률은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남자의 2.2배에 달한다. 여자는 사업체 규모가 주는 영향이 역 U자형인 것으로 보인다.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혼인 탈출 확률이 높아지지만,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과 혼인 탈출 확률이 크게 다르지 않다.

남자는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탈출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전문대 졸업자의 혼인 탈출 확률은 1.4배, 대졸자는 1.5배 정도로 추정된다. 여자도 학력이 높아지면 혼인 탈출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남자만큼 두드러지지 않는다.

## 2. 출산의 결정요인

<표 5>는 20대와 30대 미혼 남성과 여성이 5년 이내에 자녀 출산을 경험할 확률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기 위해 로짓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먼저 남자는 20대와 30대 모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가질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가구소득이 10% 오르면 20대 미혼자가 5년 이내에 자녀를 가질 확률이 0.002 정도 높아지고, 30대는 0.005 정도 높아진다. 20대 남자는 가구 자산이 많을수록 5년 내 자녀를 가질 확률이 작지만 유의하게 높아진다. 30대 남자에게는 자산이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에 대해서는 30대에서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데, 자산이 많을수록 출산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소득이 10% 오르면 출산 확률이 0.002 정도 높아지고, 가구자산이 10% 많아지면 출산 확률은 0.001 정도 낮아진다. 전체적으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학력이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 이상이면 20대와 30대 남자의 5년 내 출산 확률이 낮아진다고 추정된다. 부모의 나이는 30대 여자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살고 있는 지역은 성별로 반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는 서울시보다 광역시와 도에 사는 사람이 출산 확률이 높지만, 여자는 그 반대이다. 남자는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5년 이내에 자녀를 가질 확률이 20대는 5%P 정도 높고, 30대는 2%P~3%P 가량 더 높다고 추정된다. 반면에 여자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5년 내에 자녀를 가질 확률이 20대에서는 2%P 내외, 30대에서는 6%P 내외 더 높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출산확률이 낮아지는데, 20대 남녀에서 가구원 수의 영향이 유의하다.

<표 5> 20대와 30대 미혼 남성과 여성의 5년 이내 자녀 출산 확률 결정요인의 로짓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20대		30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균등화 가구소득 대수값	0.287***	-0.055	0.435***	0.457*
가구자산 대수값	0.118***	0.030	-0.005	-0.195*
아버지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중졸 이하	-0.066	0.230	-0.290**	-0.072
대학 이상	0.217	0.407*	-0.170	-0.342
어머니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중졸 이하	-0.010	0.515***	0.172	0.625
대학 이상	-0.783***	0.263	-1.040**	0.020
아버지 나이	-0.002	-0.016	-0.013	0.117**
어머니 나이	-0.024	-0.029	-0.013	-0.115**
가구 소재지(기준: 서울시)				
광역시	0.721***	-1.122***	0.309*	-1.594***

설명변수	20대		30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도	0.791***	-0.326**	0.190	-0.616*
가구원 수(기준: 3명)				
4명	-0.495***	-0.189	-0.028	-1.037***
5명	-0.431***	-0.389*	0.023	-0.426
6명	-0.393	-0.752**	-0.480	-0.094
7명	0.239	-0.339	NA	NA
8명	-0.020	NA	NA	NA
9명	1.020	NA	NA	NA
노동시장 상태(기준: 30인 미만 사업체 취업)				
통학	-0.835***	-0.625**	NA	0.148
미취업	-0.756***	-0.357**	-0.765***	-0.942**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0.268*	0.116	-0.485**	0.799*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0.310**	0.207	0.075	-0.424
1,000인 이상 사업체 취업	0.502***	-0.065	0.447**	-0.174
사업체 규모 불명 취업	0.081	0.150	-0.023	0.317
학력(기준: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NA	NA	-1.204**	NA
전문대	0.045	-0.051	0.433**	-0.990**
대학교	-0.179	-0.065	0.654***	-0.208
대학원	0.146	-0.473	1.157***	0.525
나이(기준: 25/35세)				
20세/30세	-1.826***	-2.076***	0.109	-0.195
21세/31세	-1.021***	-1.427***	0.101	-0.098
22세/32세	-0.935***	-1.226***	0.251	-0.351
23세/33세	-0.791***	-0.780***	0.337	-0.502
24세/34세	-0.252	-0.557**	0.322	-0.695
26세/36세	0.223	0.338	0.357	-0.889
27세/37세	0.505***	0.446**	-0.086	-0.632
28세/38세	0.665***	0.476**	-0.223	-1.264
29세/39세	0.579***	0.567**	0.117	NA
조사차수(기준: 2차)				
3차	-0.203	-0.026	0.564	-1.805
4차	-0.408**	0.037	0.064	-0.953
5차	-0.347*	0.034	-0.206	-0.237
6차	-0.507**	0.358	-0.209	-0.624
7차	-0.552***	0.130	-0.515	-0.885

설명변수	20대		30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8차	-0.799***	0.169	-0.566	0.036
9차	-0.880***	-0.140	-0.804**	-0.131
10차	-0.689***	-0.382	-0.860**	0.071
11차	-0.782***	-0.426	-1.503***	-1.343
12차	-1.053***	-0.371	-1.192***	-1.698*
13차	-0.927***	-0.693*	-0.891**	-2.898**
14차	-1.375***	-0.967**	-1.177***	NA
15차	-1.544***	-1.049**	-1.099***	-2.690**
16차	-1.555***	-0.873*	-1.455***	-1.617
17차	-1.421***	-0.877*	-1.622***	-0.857
18차	-1.721***	-1.490***	-1.362***	-1.932*
19차	-1.979***	-1.416**	-1.320***	-1.503
20차	-1.938***	-2.243***	-1.107***	-2.743**
상수항	-1.391*	0.165	-1.058	-0.961
관측치 수	8,344	8,388	2,389	1,016
관측된 5년 이내 출산 확률	0.0959	0.0383	0.1599	0.0669

주: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 10% 수준에서 유의함

본인의 노동시장 상태의 영향을 보면 성별이나 나이대와 상관없이 미취업자는 취업자보다 5년 이내 출산 확률이 더 낮다. 여자는 취업자 사이에서는 출산 확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남자에서는 1,000인 이상 사업체에 취업한 사람의 출산확률이 30인 미만 사업체에 취업한 사람보다 유의하게 높다. 그 차이가 20대는 약 5.6%P, 30대는 약 6.8%P로 추정되어서 매우 크다. 본인의 학력은 20대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고, 30대에서는 대체로 출산 확률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남자에게서 그러하다. 대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의 5년 내 출산확률은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약 8%P 더 높다. 20대에서는 남녀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5년 내 출산확률이 커지는 반면에, 30대에서는 나이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5년 내 출산 확률은 낮다.

<표 6>은 고정효과 로짓모형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가구소득은 성별과 나이대 상관없이 모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가구 자산은 30대 여자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30대 여자에게서만 가구 자산의 영향이 왜 반대로 나타나는지는 불분명하다. 노동시장 상태는 20대에서만 통학이나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5년 내 출산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7>에 나온 25세부터 자녀를 가질 때까지의 기간을 이용하여 Cox Proportional Hazard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와 유사하다. 주목할 만한 점을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이나 가구자산은 남자에게만 유의한 영향을 주며 둘 다 출산으로의 hazard를 높

<표 6> 5년 이내 자녀 출산의 결정 요인에 대한 고정효과 로짓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20대		30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균등화 가구소득 대수값	1.545***	0.987***	0.576**	4.659**
가구자산 대수값	0.268***	0.289**	0.561**	-8.296**
노동시장 상태(기준: 30인 미만 사업체 취업)				
통학	-2.963***	-3.638***	-16.798	22.951
미취업	-1.690***	-0.888**	-0.023	-0.768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0.262	0.024	-0.147	1.768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0.426	-0.090	0.447	-6.184
1,000인 이상 사업체 취업	0.131	-0.207	0.481	NA
사업체 규모 불명 취업	-0.195	0.523	0.300	5.514*
관측치 수	1,467	657	449	55

주: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 10% 수준에서 유의함

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둘째, <표 5>에 나온 바와 같이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 이상이면 그 이하 학력에 비해 출산으로의 hazard가 낮게 나타난다. 셋째, 여자보다 남자에서 본인의 취업상태와 취업의 질이 출산 hazard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표 7> 25세부터 첫 자녀 출산까지 걸리는 연수의 Proportional Cox 모형의 hazard ratio 추정 결과

설명변수	남자	여자
균등화 가구소득 대수값	1.190*	1.109
가구자산 대수값	1.100*	0.935
아버지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중졸 이하	1.102	0.994
대학 이상	0.883	1.351
어머니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중졸 이하	0.933	1.425
대학 이상	0.578*	1.123
아버지 나이	0.970	0.962
어머니 나이	0.998	1.013
가구 소재지(기준: 서울시)		
광역시	1.498***	0.427***
도	1.375**	0.744
가구원 수(기준: 3명)		
4명	0.836	0.855
5명	0.874	0.832

설명변수	남자	여자
6명	0.771	0.790
7명	0.228	0.302
8명	1.447	0.000
9명	3.612***	NA
노동시장 상태(기준: 30인 미만 사업체 취업)		
통학	0.849	1.193
미취업	0.632**	1.285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1.509	0.758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 취업	1.375	1.820**
1,000인 이상 사업체 취업	1.977***	1.120
사업체 규모 불명 취업	1.138	0.950
학력(기준: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0.401	0.000***
전문대	1.216	1.318
대학교	1.398*	1.274
대학원	1.146	1.295
관측치 수	1,370	1,171

주: 1) 차수 더미에 대한 추정 결과는 생략함.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 10% 수준에서 유의함

#### IV. 요약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성별로 혼인과 출산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높을수록 미혼자가 혼인하거나 이른 시일 안에 자녀를 가질 가능성은 커진다. 가구소득은 여자보다 남자의 혼인과 자녀 출산에 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학력이나 나이는 자녀의 혼인 확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으면 딸의 혼인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하여, 어머니의 학력이 높으면 아들이 자녀를 갖는 것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셋째, 서울시에 사는 사람의 혼인 확률이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현저하게 낮다. 이는 거주 비용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 짐작된다. 출산에 대해서도 남자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효과가 반대로 추정된다.

넷째, 가구원의 수가 많으면 혼인이나 출산 확률이 낮아진다. 가구의 자원이 많은 사람에게 배분

될수록 혼인 연령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할 자원이 작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력이 높고, 수입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의 혼인이나 출산 확률이 높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여자보다 남자의 혼인과 출산에 학력이나 일자리의 영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의 추정 결과를 보면 혼인과 출산 확률에 확실한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자에게 그런 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구 소재지에 따른 거주 비용의 차이도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혼과 비혼의 증가에는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도 물론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이 연구 결과로 미뤄 생각해보면 주거 비용의 증가와 오랜 기간 계속된 청년 고용 문제, 특히 남성 청년의 고용 문제도 한 원인일 것으로 짐작된다.

나아가 경제적 상황에 따른 혼인과 출산 확률의 차이는 앞으로 경제적 약자 중에 단독 가구나 무자녀 가구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가족 형성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청년을 위한 주거 대책, 교육 지원 정책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성준,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제38권 제4호 (2015): 57-81.
- 남국현·김대일,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제13집 제2호 (2016. 12): 25-52.
- 안태현,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2010): 35-64.
- 이상호·이상현,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2010년 12월.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20년.